

韓國 教育哲學의 學史的 研究

韓 基 彥
(教育學科)

I. 序 言

本稿에 있어서는 韓國教育學史 가운데서도 특히 ‘教育哲學’의 學史的 考察을 하는 데 그 焦點을 두기로 하였다.

생각컨대 ‘韓國教育哲學의 學史的 研究’라 함은 乙酉光復이후 現今에 이르기까지의 우리나라 教育哲學의 研究發展의 자취를 살펴 보는 것이기에 學史的 接近에 主眼點을 두기로 하였다. 따라서, 微視的인 理論的 內容分析을 하되 그것을 크게 세 가지 시기와 類型으로 나누어 어디까지나 學史的 主調가 무엇이었던가를 밝히는데 注力키로 하였다. 이리하여 마침내 우리가 乙酉光復을 起點으로 하여 現今에 이르기까지 追求해 온 바 ‘韓國의 教育哲學’의 學問的 業績 및 우리의 當면한 課題가 무엇인가를 이 기회에 分明히 해 보려는 것이다.

말할 나위도 없이 여기서 말하는 ‘韓國教育哲學’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줄로 안다.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研究가되어온 教育철학 일반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한국에서 唱導된 보다 獨創性을 지닌 教育철학을 指稱하는 뜻의 것이다. 여기서 이 두 가지 의미의 것이 모두 ‘韓國教育哲學’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지는 것이거나, 다만 우리들의 課題意識에서 볼 때 후자의 追求가 더욱 큰 學的 關心을 끄는 것인 것만은 사실이다.

다음으로, ‘學史的 研究’라 할 때, 그 背景을 이루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韓國教育學史’인데, 나 자신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先行研究를 한 바 있음을 밝혀 두기로 한다. (高大民族文化 研究所, 1976, 457~509/韓基彥 1974, 223~369/大韓民國學術院, 1976, 267~403)

그러면, 이제 순서에 따라, 弘益人間的 理念과 듀이 教育哲學의 主導/多樣한 現代歐美教育哲學의 紹介 및 受容/韓國의 教育的 傳統의 發掘 및 새로운 韓國教育哲學의 定立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弘益人間的 理念과 듀이 教育哲學의 主導

이 時期를 便宜上 제 I기라고 부른다면 그 기간은 대체로 1945년부터 1953년까지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편의상의 것으로서, 이를테면 ‘듀이教育哲學의 研究’만 하여도 그것은 결코 1953년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거니와, 도리어 研究成果로 치면 그 이후 現今에 이르기까지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며, 도리어 質과 量에 있어서도 제Ⅰ기 이상의 것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니, 다만 乙酉光復 이후 現今에 이르는 전기간을 통한 각 시기의 特性을 가려서 말한 것에 지나지 않음을 일러 둔다. 그러므로 제Ⅱ기 및 제Ⅲ기의 特性에 비추어 보아 역시 제Ⅰ기는 ‘弘益人間的 理念과 듀이教育哲學의 主導’라고 표현함이 적절하리라고 본 것 뿐이다.

乙酉光復을 계기로 하여 우리나라는 새로운 教育理念의 設定이 時急하였다. 그 결과 朝鮮教育審議會에 의해서 決定된 것이 ‘弘益人間的 理念’이었다. (白樂濬, 1963, 22~24) 이것은 후에 「教育法」第1條에 明記됨으로써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教育理念을 象徵하는 말이 되고 있다. (「教育法」第1條)

그런데 나는 그간 論議가 되어 왔던 韓國教育의 理念을 歷史的 眼目에서 정리하고 類型化해 본 적이 있거니와(韓基彥, 1975, 889~900), 그것은 모두 열 두 가지가 된다. 즉, ‘弘益人間的 理念’이 原型이요 論點이 되거니와, 이를 支持하고 그 妥當性을 解說한 ‘一民主義’ 및 「民主主義 民族教育論」(司空桓·外, 1949)등을 가리켜 ‘解說型’이라고 일컬은 것을 비롯하여, 摸索型(問題提起型)/思想移植型/課題解決型(對症療法型)/質問紙型/多岐接近型/思想源流型/社會科學型/形而上學型/自由放任型/比較思想型/論理構造指向型 등을 列擧각기 간단한 설명을 가해 보았던 것이다.

이러하여 ‘弘益人間的 理念’은 분명히 우리나라 「教育法」에 明示된 教育理念이면서도 여전히 그것의 學的 理論提示는 불충분한 感을 주고 있다. 이러한 不足感을 解消시키기 위한 국가적 규모의 노력의 一端은 「國民教育憲章」의 制定으로 표시되었다. 또한 이에 관련된 解說書도 여러 종류 刊行되었다(유형진, 1969).

이렇듯 제Ⅰ기에 있어서는 새로운 우리나라 教育理念으로서 ‘弘益人間的 理念’이 提示되었으나, 실제 主導的 役割을 한 것은 ‘듀이教育哲學’이었다. 이제 여기서는 듀이教育哲學 研究에 관한 것을 一括해서 보아 시기적으로 제Ⅰ기가 아니더라도 아울러 다루기로 한다.

「韓國教育에 미친 듀이教育思想의 影響」이라는 論文(韓基彥, 1975, 371~387)에서言及했듯이, 解放 당시 듀이思想은 마치 ‘民主教育의 福音’인양 받아들여졌던 것이며, 새교육의 指標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듀이教育哲學을 導入, 이에 準據하여 당시 우리나라 教育을 主導한 教育哲學者로는 吳天錫, 李寅基, 許鉉 및 林漢永을 들 수 있다.

吳天錫은 李寅基와 함께 韓國教育學界의 雙璧을 이루는 元老의 한 분이다. 그는 美軍政時代의 文教部 次長 및 部長을 지냈으며 大韓教育聯合會 회장 및 第二共和國時代의 文教部 長官, 第三共和國時代에 이르러 駐멕시코 大使가 되었으며,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長 및 韓國教育學會 회장을 歷任한 바 있으며, 現在는 學術院 會員이다. 또한 그의 著書는 「吳天錫

教育思想文集」(全 10卷)으로 體系化되어 있으며, 現在도 著作生活은 계속되고 있다. 그 중 에서 특히 그의 저서 「教育哲學新講」은 韓國教育學會 學術賞(第 1回, 1972)을 受賞한 바 있다.

그가 1946년 11월에 刊行한 「民主主義教育의 建設」(吳天錫, 1946)은 듀이와 킬패트릭의 教育哲學에 依據하여 집필 저술된 것으로서, 당시 새교육의 艱難이 되는 책이 거의 없었던 때였으니 만큼 크게 歡迎되어 一線教師들에게 널리 읽혀진 책이 되었다. 뒤이어 1960년에는 그간 발표한 글을 모아 「民主教育을 指向하여」(吳天錫, 1960)가 刊行되었는데, 듀이 哲學으로 一貫된 論旨를 찾아 볼 수 있다.

더욱이 그는 듀이의 主著 「民主主義와 教育」을 林漢永과 共譯 刊行함으로써(吳天錫, 林漢永 共譯, 1953) 崔秉七에 의한 部分譯本의 아쉬움을 克服시켰으며 듀이 哲學의 가장 중요한 內容을 우리말로 옮겨 놓는 일을 하였다. 그후 여러 人士들에 의한 듀이 著書의 翻譯事業이 계속 진행되어 今일에 이르고 있다.

韓國教育學界의 元老요 先驅者의 한 분인 李寅基는 商科大學(初代)學長을 비롯하여 서울 大學校 文理科大學長, 同 大學院長, 淑明女大總長을 거쳐 現在 嶺南大學校總長으로 在任中이다. 韓國教育學會長 및 韓國教育史教育哲學會長을 歷任한 바 있거니와, 그는 成均館大學校, 延世大學校 및 嶺南大學校에 각각 '教育學科'를 創設함으로써 教育學專攻者 培養에 크게 貢獻하였다. 學術院 會員이며, 또한 「국민교육헌장」 起草委員의 한 사람이다.

그의 著書로는 「教育和 思想」(李寅基, 1976)이 있다. 이 책에는 1935년 「哲學」誌 第 3號에 발표한 論文 「教育原理로서의 個性과 社會와 文化」를 비롯한 40여년간에 걸쳐 발표한 글이 收錄되어 있어 韓國教育學史研究에 있어서도 빼놓을 수 없는 貴重한 文獻的 價値를 지닌 著書라고 본다.

그는 듀이의 「學校와 社會」를 일찌기 번역 간행한 바 있거니와, 「民國의 教育精神과 學制改革」(1950)이라는 論文에서는 그의 民主的 教育觀이 잘 나타나 있다. 즉 學制改革의 問題를 말함에 있어, 學校系統을 세움에 가장 基本的 原則이 되는 다섯 가지 條目을 들었는데, 그것은, ① 國家의 모든 屬員에게 일정한 標準의 教育을 빠짐 없이 보급시킬 것, ② 基礎教育 이상의 教育은 修學者의 장래의 職業的 活動을 예상하여 學校의 정도와 종류를 가급적 다양화 할 것. ③ 個性에 따른 '進學의 自由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各 階段學校間의 縱的 橫的 연락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組織을 확립할 것. ④ 實務에 就하는 者의 教育은 그 授業制限을 가급적 단축할 것, ⑤ 學術研究를 위하여 특수한 機關을 설치 할 것(李寅基, 1976, 68~69)을 말하였던 것이다.

여기에 있어 잊어서 안될 教育哲學者의 한 사람으로서 꼽고 싶은 것은 許鉉이다. 그는 누구보다도 듀이 哲學을 잘 理解한 사람으로서 그러기에 듀이 哲學의 韓國化에 힘쓴 자국을 쉽사리 찾아 볼 수 있는 것 같다. 즉, 그의 遺稿文集인 「人間의 第四革命」(1967) 중 논집

의 書名이 되기도 한 같은 제목인 論文 끝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러므로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에 충분한 주의를 하되 우리의 기초 작업을 잊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어떠한 청년이 나에게 “선생님 한국서 듀이 교육을 하였는데 어찌하여 성공치 못합니까?”하였다. 나는 말하기를 “한국 교육자들이 듀이를 받아들이고 버리기 때문입니다. 언제 듀이가 한국에다 미국 교육을 하라 하였습니까?” 모름지기 한국은 최대한의 자연 내지 사회과학을 배움으로써 기술의 사회적 기초를 쌓을 때이다.

인류는 하나이다. 그들은 대열은 다르나 같이 나갈 수 밖에 없나니, 나는 나의 가장 존경하는 성웅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이 말을 끝내고자 한다. 링컨의 말처럼 “갈라진 집은 오래 못견딘다. 적을 없애는 방법은 그를 친구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듣는 부처님, 공자님, 예수님……들께서도 물론 “아! 나의 형제다운 말이로군”이라 하실 것으로 필자는 믿는 바이다. (許鉉教授遺稿文集刊行會 1967)

위에 引用한 글의 含意는 許鉉의 듀이哲學理解의 深度를 나타내는 것이요, 그가 注力한 것은 듀이哲學의 韓國의 實現化에 있었던 것이다.

이제 듀이教育哲學을 直說的으로 生涯事業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林漢永에 관하여 言及하여야겠다.

그는 吳天錫과 함께 「民主主義와 教育」을 번역하였음은 물론, 「思考하는 方法」을 번역하였고, 또 「듀우이教育思想의 研究」(林漢永, 1968)와 「존 듀우이의 生涯와 思想」(林漢永, 1977)을냄으로써 本格的인 듀이教育哲學研究의 里程碑를 수립하였다.

그는 「John Dewey의 生涯와 그 教育思想」이라는 演題로 1953년 韓國教育學會 創立時, 紀念講演을 한 이래로, 1979년 韓國教育學會가 마련한 林漢永 博士停年紀念講演으로 「John Dewey教育哲學의 定義」라는 강연을 하기까지 數次에 걸친 듀이紀念講演을 행한 바 있다. 우리는 여기에 있어 어느 教育哲學者보다도 斷然 듀이가 林漢永主導下에 追慕되어 왔음을 분명히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하나 特記할 일은 「듀이研究會」에 관해서이다. 이에 관하여 林漢永은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듀우이 연구회가 처음으로 발족된 것은 1967년 5월 15일 金桂淑·이인기·김준섭·김태길·임한영 등 듀우이 철학과 교육철학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 온 교수들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연구회로서 시작한 것이다. 그 동안 매월 1회씩 모여서 듀우이에 관한 사항을 연구 발표해 왔다. 이제는 이를 대중적인 연구회로 발전시켜 그 회원도 50여명에 달하고 있는 형편이다. 앞으로 더욱 듀우이에 관한 연구물을 내어 놓게 되리라고 믿는다(林漢永, 1977, 220)

고 하였는데, 우리나라 教育學 및 哲學의 重鎮教授 5인이 듀이思想研究를 위하여 하나의 研究會를 組織하고 다년간 月例發表를 꾸준히 가져 왔다는 것은 그것 자체만 가지고도 意義 깊은 일이라고 하겠다. 그만큼 듀이思想은 한 때 우리나라 教育哲學研究分野에 있어서 主導的 役割을 해온 教育사상임을 窺知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듀이教育哲學研究는 上記한 主要學者 이외에도 朴奉穆(Park, Bong Mok, 1968), 金在萬(Kim, Jae Man, 1973), 李敦熙(1964, 72~82), 鄭健泳(1967, 64~76) 등에 의하여 卓實하게 연구추진되어 오고 있다.

Ⅲ. 多様な 現代歐美教育哲學의 紹介 및 受容

다음은 제Ⅱ기인데, 그 기간은 대체로 1953년부터 1963년까지라고 하겠다. 이 시기의 韓國教育哲學史의 特徵은 듀이教育哲學에 대한 懷疑 내지 批判과 아울러 그것의 表明으로서의 多様な 現代歐美教育哲學의 紹介 및 受容에 있었다고 하리라. 그런데 하나 미리 일러 두어야 할 것은 제Ⅰ기가 그랬듯이 시기 구분은 어디까지나 전체적인 教育哲學史의 思潮上의 特性을 강조하기 위해서뿐이요, 따라서 그후에도 계속된 같은 傾向의 學問的 成果는 편의상 모두 이 제Ⅱ기에서 아울러 다루기로 하였다.

多様な 現代歐美教育哲學의 紹介 및 受容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考察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하나는 翻譯書의 刊行이요, 다음은 多様な 教育哲學을 內容으로 한 著書요, 또 하나는 解題書이다.

첫째는 翻譯書로서, 여기에는 恒存主義를 비롯하여 本質主義, 改造主義, 實存主義, 構造主義 및 分析主義 등의 것이 포함된다.

듀이哲學이외의 것으로 가장 일찍이 번역 간행된 책으로는 王學洙, 安仁熙共譯인 마리탱(Jacques Maritain)의 *Education at the Crossroads*를 꼽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教育哲學」(王學洙, 安仁熙譯, 1955)이라는 譯書名으로 나와 당시 教育哲學 관계서가 우리말로 나온 것이 없었던 때여서 더욱 學界의 關心을 끌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이 進歩主義를 批判하는 恒存主義 教育哲學書라는 점에서 크게 注目된 것이기도 하였다. 그 후 恒存主義에 속하는 허친스(Robert M. Hutchins)의 著書(李鍾學譯, 1961/1965)가 李鍾學에 의하여 번역 간행되기도 하였다.

本質主義에 관한 번역서는 韓基彥이 울리크(Robert Ulich)의 「教育思想史」(韓基彥譯, 1957)를, 이어서 柳炯鎭은 「人間과 教育」(柳炯鎭, 1961a)을, 또한 그는 화이트헤드(Alfred North Whitehead)의 「教育의 目的」(柳炯鎭譯, 1961b)을 각각 번역 出刊하였다. 한편, 李寅基와 徐明源은 브로우디(Harry S. Broudy)의 "*Building a Philosophy of Education*"을 「教育哲學」(李寅基, 徐明源譯, 1963)이라는 書名으로 번역하였다. 譯者序文의 一節에 “브로우디 博士는 요즘 美國에서는 드물게 볼 수 있는 教育學者요 哲學者이다. 그가 자기의 立場을 古典的 實在論의 이름으로 표방하고 있는 것으로도 짐작이 가듯이, 過去 數十年 동안 美國의 教育界를 휩쓸어온 進歩主義教育思想에 깊은 反省을 하고 있는 듯하다”(上揭書, 3)고 한 말은, 그런 까닭에 이 책을 우리나라 教育界에 번역 소개한다는 뜻으로 讀者들로 하여

금 받아들이게도 한다.

改造主義에 있어서는 브라멜드(Theodore Brameld)의 著書를 黃宗建이 「文化的 危機와 教育」(黃宗建譯, 1975)이라는 번역서로 냈으며, 構造主義는 李烘雨가 브루너(Jerome S. Bruner)의 「教育의 過程」(李烘雨譯, 1973)을 번역하였다.

또한 實存主義 관계서로는 金恩雨가 넬러(George F. Kneller)의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Education”을 「現代教育哲學」(金恩雨譯, 1966)이라는 이름으로, 또한, 李奎浩는 볼노브(Otto Friedrich Bollnow)의 「實存哲學과 教育學」(李奎浩譯, 1967)을, 각각 번역하였는데, 특히 후자의 저서는 볼노브가 來韓한 일도 있어 現代獨逸教育哲學에의 學的 關心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도 되었다.

英國의 教育哲學에 대한 번역서는 分析主義에 속하는 허스트(P.H. Hirst)와 피터즈(R.S. Peters) 共著인 “The Logics of Education”이 文仁元, 金在範, 崔熙善, 盧宗熙 共譯으로 「教育의 再吟味」(文仁元, 外共譯, 1977)라는 이름아래 번역 소개되었다.

이 밖에 페닉스(Philip H. Phenix)가 편집한 「教育哲學」(成來運譯編, 1963)이 成來運譯編으로 刊行되었고, 슈프랑거(Eduard Spranger)의 “Der Geborne Erziehler” (金在萬譯, 1976)를 金在萬이 譯刊하였다. 또한 니일(A.S. Niell)의 “Summer Hill School” (姜聲涓譯, 1977)이 姜聲涓에 의하여 번역되어 英國의 新教育思想이 紹介되었다.

둘째는 多樣的 諸教育哲學을 內容으로 한 著書이다.

吳天錫編著로 된 「教育思想」은 ‘現代教育의 諸問題’라는 副題가 붙어 있거니와 ‘머리말’에서는 이 책을 처음 計劃에는 없었으나 「現代教育叢書」의 마지막인 第十五卷으로 내어놓게 된 緣由를 밝히고 있다. 즉,

교육에 있어 ‘어떻게’라는 문제도 중요하지마는 ‘왜’라는 문제가 더욱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더우기 現代는 사상상으로 混亂이 甚한 時代와 固定되고 變化가 없는 사회에 있어서는 ‘어떻게’라는 문제가 ‘왜’라는 문제보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모든 것이 流動하고, 價値觀사이의 격동이 甚한 때에 있어서는 이 ‘왜’라는 문제가 先行的인 地位를 요구하며 등장한다. 우리 교육 행위에 方向을 보여주고, 그 意義를 깊이 하게하는 문제가 優先的으로 考察하지 않으면 안 될게 된 것이다. (吳天錫編, 1962. 1)

라고 하여 당시 教育哲學關係書出刊이 다른 教育方法論書以上으로 그 出刊이 切實히 요망되는 까닭을 단적으로 吐露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現代教育思潮」(韓基彥, 1965)가 韓基彥에 의하여 著述되었는데, 이 책은 모두 일곱章으로 構成되어 있다. 現代教育哲學의 源流라고 하여 歐美現代教育哲學의 系譜를 概觀하고, 이어서 實用主義教育哲學의 展開(進步主義), 教育的 傳統에 대한 두 가지 主流 I, II (本質主義, 恒存主義), 새로운 教育哲學을 위한 挑戰(改造主義 및 其他), 國民教育制度和 教育改革運動(世界教育의 地域研究) 및 現代教育의 諸問題라하여 教養教育의 문제

를 비롯한 道德教育, 教師養成, 市民教育 및 國際教育의 문제 등을 다루었다.

그후, 韓國教育學會編으로 「教育의 哲學的 理解」(韓國教育學會編, 1971)가 나왔는데, 李奎浩는 教育現象과 教育學을, 林漢永은 Pragmatism의 進步主義教育哲學을, 金恩雨는 實存主義教育哲學, 柳炯鎭은 本質主義와 教育哲學, 李寅基는 理想主義哲學과 教育, 金敬琢은 儒敎와 教育哲學, 李奎浩는 基督教의 教育, 金東華는 佛敎와 教育思想을 각각 執筆하였으며, 卷末에는 「韓國教育의 哲學的 基礎와 그 展望」(上揭書, 262~282)이라는 對談이 실려 있어, 당시 우리나라 教育哲學界重鎮人士들의 課題意識이 무엇이었는가를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金丁煥은 「教育의 哲學과 課題」(金丁煥, 1974)를 著述하여 自然主義, 理想主義, 實存主義, 프래그머티즘, 進步主義, 本質主義, 恒存主義, 再建主義, 實存主義, 基督教·佛敎·儒敎와 教育을, 각각 特質과 課題라는 側面에서 廣汎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 그는 人類의 十大課題와 아울러 韓國教育의 課題가 무엇인가를 밝혔다. 最近에 刊行된 申得烈의 「교육사상가 연구」(신득렬, 1979)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및 아리스토텔레스를 다룸으로써 西洋古代教育哲學研究에 첫試圖를 보여주고 있다.

세계는 教育哲學 關係의 解題書이다.

이에 관련된 최초의 것으로는 韓國教育史教育哲學會編인 「教育思想家百選」(韓國教育史教育哲學會編, 1967)이 있다. 이 책은 碧溪 李寅基博士의 回甲을 紀念하기 위하여 刊行된 것인데, 韓國을 비롯하여 東西洋의 主要教育思想家百名을 각각, 生涯 및 業績/思想的 背景/教育思想의 순서로 다룸으로써 하나의 教育哲學事典 내지 이 分野에 관한 入門書의 구실을 겸할 수 있게 한 것이 特色이라고 하겠다.

그후, 教育古典文獻研究會編著로 「教育古典의 理解」(教育古典文獻研究會編, 1973) 및 「20세기 教育古典의 理解」(教育古典文獻研究會編, 1975)가 나왔는데, 이 二部作을 통하여, 古代는 플라톤의 「國家篇」으로부터 現代는 브루너의 「教育의 過程」에 이르기까지 모두 25篇의 教育古典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책의 特色의 하나는 각 古典의 一部가 對譯形式으로 掲載되어 있어 二重效果를 거두고 있다. 原文을 拔萃하여 挿入한 英文版著書로는 申得烈에 의한 「A History of Educational Thought」가 있다.

한편, 韓基彥編인 「教育名著解題」(韓基彥編, 1979)는, 韓國의 教育名著 16篇, 東洋의 教育名著 15篇, 西洋의 教育名著 23篇을 收錄하고 있어 名實共히 세계의 教育名著를 解題한 著書로서 그 刊行의 意義가 評價되고 있다. 各篇마다 生涯와 思想/論著解題/教育思想史的 位置라는 순서로 叙述되어 있다.

IV. 韓國의 教育的 傳統의 發掘 및 새로운 韓國教育哲學의 定立

이제 우리는 제Ⅲ기인 1963년부터 現속에 이르기까지를 살펴 보기로 한다. 이 시기는 韓

國學의 再建과 아울러 새로운 韓國教育哲學의 定立을 위하여 精力的인 研究가 集中되어 있는 데에서 그 特徵을 찾아 볼 수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 보기로 하겠다.

첫째는 韓國教育史教育哲學會 및 韓國教育史研究會의 結成 및 發展에 관해서이다.

이 두 學術團體는 現在 韓國教育學會의 傘下에 있다. 그런데 위의 두 研究會는 1964년 (11월 11일)과 1967년 (7월 10일)에 각각 創立되었거니와 이 두 研究會가 그간 이루어 놓은 學問的 業績은 深대한 것이 있다고 본다. (韓國教育學會編, 1973b, 187~197). 그것은 月例發表會가 그간 활발하게 開催되어 온 일을 비롯하여 최다수의 韓國教育學會 學術賞(著作賞 및 論文賞) 受賞者가 나온 것만 보아도 立證할 수 있을 것 같다.

둘째는 韓國의 教育的 傳統 發掘에 관해서이다.

‘韓國教育에 있어서의 傳統의 發掘과 그 繼承에 관한 問題’는 일찌기 韓基彥이 提起한 (韓基彥, 1964. 12. 14/1967. 9. 8)이래로 그후 韓國教育史教育哲學者들에 의하여 점차 구체적인 研究成果가 蓄積되어가고 있다.

李寅基는 「韓國教育哲學의 回顧와 展望」이라는 論文을 통하여 위와 같은 問題提起가 1960年代의 우리들의 共通된 學的 課題意識이었음을 立證하고 있다. 즉,

그러한 趨勢 속에서 教育史教育哲學研究會가 誕生하였습니다. 專攻分野別研究會 成立의 嚆矢라 하겠으며 그것은 우리나라 教育學發達史에 하나의 劃期的인 寄與를 하였음에 틀림없습니다. 教育史教育哲學研究會가 지난 13年 동안에 쌓아 온 業績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제 研究誌 創刊을 보게 된 事實 自體가 그것을 如實히 證明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學界에서 民族 主體性이 研究課題로서 浮刻되어 傳統文化의 發掘 繼承, 國家近代化의 過程에서 傳統과 創造의 關係에 대한 反省이 深刻해졌을 무렵에 教育史教育哲學研究會가 創設되었습니다. (「教育史教育哲學」, 1977. 7. 9.)

라고 言明하고 있다.

여기서는 韓國教育史學의 研究成果一般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省略기로 하겠다. (碧溪 李寅基博士古稀紀念教育學論叢, 1976, 37~43/韓國教育學會編, 1973a, 60~79). 다만 韓國의 教育的 傳統 發掘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지닌 論著 몇 篇을 꼽아 보면, 「韓國教育의 理念」, 「韓國教育思想史研究」 및 「韓國思想과 教育」(韓基彥, 1968/1969/1973)을 비롯하여, 「韓國文化와 教育」(金仁會, 丁淳睦, 1974), 「栗谷의 教育思想」과 「申師任堂의 生涯와 敎訓」(孫仁銖 1976a/1976b) 「새로운 女性의 길——韓國女性教育思想研究」(金蕙卿, 1975), 「退溪敎學思想研究」(丁淳睦, 1978), 「韓國人의 價値觀」(孫仁銖, 1978/金仁會, 1979/韓國學報, 第十三輯, 200~204)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教育哲學書의 刊行 및 새로운 韓國教育哲學의 定立에 관해서이다.

일찌기 林漢永은 「教育哲學」(林漢永, 1957)을 單行本으로 出刊함으로써 당시 未開拓의 이었던 이 分野에 先驅的 役割을 하였다. 그후 吳天錫에 의하여 出刊된 「教育哲學新講」(吳

天錫, 1972)은 典型的인 敎育철학 敎科書의 하나로서 好評을 받고 있다. 이 책은 3部로 構成되어 있다. 제 1부에서는 一般哲學的인 基本理論을, 제 2부에서는 敎育哲學의 諸學派를, 그리고 제 3부에서는 敎育問題를 中心으로 論述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미 앞에서 紹介한 바있는 金丁煥의 「敎育의 哲學과 課題」가 있으며, 金善陽의 「敎育哲學」 및 李敦熙의 「敎育哲學概論」이 있다.

金善陽은 '머리글'에서 그의 著書가 敎育一般에 대해서는 吳天錫博士의 著作에서 그 배운 바가 컸고, 哲學一般에 대해서는 家親 金基錫敎授의 著作과 生活에서 그 얻은 바가 컸다" (金善陽, 1976)고 밝히고 있거니와, 哲學과 敎育/傳統的 敎育哲學/새로운 哲學思想과 敎育/現代的 敎育哲學/民主主義의 本質과 敎育/民族主義와 敎育/페스탈로찌의 敎育哲學/韓國敎育의 反省 등에 論及하고 있다.

한편, 李敦熙의 「敎育哲學概論」은 그의 見解가 序文을 통하여 端的으로 表明되어 있다. 즉

'敎育哲學'이 실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理解되고 있는 이상, 概論書를 쓴다는 것이 매우 無理한 일인 것을 著者는 스스로 느끼고 있다. 그러므로 著者는 이 책에서 모든 敎育哲學의 論議를 포괄하면서 客觀的으로 紹介하는 立場을 버리는 것이 오히려 賢明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어쩌면 그렇게 하는 것이 安易한 方法이라고 믿었던 탓인지도 모른다.

라고 하면서, 또 이어서 말하기를,

그러나 著者는 적어도 이렇게 믿고 있다. 즉, 敎育哲學의 研究는 '敎育'이라는 人間의 社會的 企業을 包括的으로 이해하고 敎育의 現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價値判斷의 準據를 밝히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敎育의 原理와 技術을 나타내는 概念과 理論의 엄격한 分析과 評價와 統合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이 책은 흔히 敎育哲學의 概論書에서 볼 수 있는 敎育思潮나 敎育思想體制를 별도의 項目으로 두어 다루고 있지 않다. 오히려 敎育의 過程에서 哲學的 思考가 요구되는 問題들을 중심으로 이 책의 內容이 組織되어 있다. 물론 이 책의 內容만으로는 敎育을 包括的으로 理解하는 데 결코 충분하지 않다. 단지, 著者로는 敎育哲學의 性格과 課題들을 밝히고자 하는 데서 力點을 두고 이 책을 전개하였다. 말하자면, 어떠한 성격의 敎育問題의 解決에 哲學的 思考가 어떻게 그 機能을 할 수 있는가에 주된 관심이 주어졌다. (李敦熙, 1977. 3)

고 이책의 特性 및 限界性을 밝히고 있다. 또한 위의 引用文속에는 그간 우리나라에서 刊行된 敎育哲學關係書의 傾向에 대한 著者로서의 批判이 담겨져 있기도 하다. 그러나만큼 그는 이 책을 통하여 새로운 接近法을 提示하려고 한 것으로 본다. 이 책은 모두 네 가지 章으로 되어 있는데, 敎育哲學의 性格/敎育의 概念/敎念의 倫理/知識과 敎育이 그것으로서, 分析主義의 立場을 取하고 있다. 또한 分析主義的 研究에 있어서는 成箕山을 비롯한 少壯學者들의 活動이 注目을 끌고 있다.

이제 여기서는 나 자신 注力해 온 바 새로운 韓國敎育哲學의 定立에 관하여 몇 마디 添言하려고 한다.

朴先榮은 韓基彥이 命名(1957), 提唱(1966)한 이래로 계속 하나의 韓國敎育哲學의 定立

을 위하여 (1973) 여러 論著를 통하여(韓基彥, 1968/1973/1975/1977/1979a/1979b), 發展시키고 있는 ‘基礎主義’에 대하여 그 出現의 意義를 다음과 같이 論評한 바 있다.

……그러나 하나의 獨立된 哲學的 體系를 갖추고 나타난 것은 韓基彥의 「基礎主義」가 韓國新教育史上 처음이라고 생각된다(「教育學究究」XV-1, 1977.)

고 하였는데, 이것은 일찌기 1966년 基礎主義를 提唱한 당시의 木曜會에서도 거의 같은 論評이 있었다. 또한 朴奉穆과 丁淳陸도 각기 基礎主義가 새로운 韓國教育哲學을 體系化하고 있는 學的努力으로서 指摘하고 있다.(「教育史教育哲學」創刊號, 1977, 29/38~39/「韓」V~10, 1976, 128-129)

이제 여기서는 ‘基礎主義’가 무엇인가를 이미 밝힌 바 짧은 나의 글을 引用함으로써 解說에 代身할까 한다.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拙著「韓國教育의 理念」(서울大學校出版部, 1968)에서 論述된 바, ‘3理念’(時間·自由·秩序) ‘6概念’(文化·生活·知性·人格·協同·奉仕)으로 표시되고 있거니와, 이것은 달리는 ‘傳統과 改革의 調和를 통한 人間形成의 論理’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단순한 論理構造나 교육가치 체계로서 고정된 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구체적이며 변화무쌍한 ‘歷史的 狀況’ 가운데서 전개되는 것이니 만큼 각자는 예리한 역사적 감각, ‘歷史意識’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위에 제시한 ‘3理念 6概念’의 구체적인 표현은 그 用語 선택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현대적 감각을 존중하였던 것이나, 이것은 시대와 지역 그리고 사람 개개인에 따라 반드시 같은 용어를 쓰게 된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그것을 강요할 권리는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기에 도리어 소중한 것은 위와 같은 교육이념이자 교육적 가치 체계가 論理構造上 是認된다면, 실제 용어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자기 좋아하는 것으로 代替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다. 뿐만 아니라 ‘3理念 6概念’에는 여태까지 인류가 오랜 세월을 통해서 경험하고 사색한 소중한 教育的 叢智를 십분 살리면서 하나의 論理構造로 제시한 것이니, 이것을 ‘指南’ 삼아 각자가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에 대처하여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이 ‘基礎主義’가 생각하는 ‘3理念 6概念’의 교육적 의의는 자못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더우기, 여기에 제시한 틀조차도 ‘基礎로부터 새로운 基礎에까지’라는 생각을 따른다면, 나 자신까지 포함시켜서 ‘破型과 鑄型’을 되풀이하면서 계속 참된 교육 이념의 追求가 있어야 마땅하리라고 보는 것이다. 다만, 현시점에 있어서는 여기에 제시한 틀 자체에 不當性을 별로 느끼지 않으니 ‘基礎主義의 教育構造的 理解’라는 表로 나타난 사항들을 보다 實證的인 研究物을 통하여 더욱 나 자신의 所說의 타당성을 입증해 볼 생각이다. 그리고, 立論에 있어서는 위에 考察한 여러가지 類型的 장점을 아울러 살펴보려고 해왔으며, 앞으로는 더욱 그렇게 할 생각임을 添言해 둔다(韓基彥, 1975, 899~900)

고 하였는데, 이 글은 결코 짧지 않은 引用文이 되었으나 어느정도 ‘基礎主義’를 理解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줄로 안다.

V. 結 言

以上 論述한 바를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本稿에 있어서는 韓國教育學史 가운데서도 특히 ‘教育哲學’의 學史的 考察을 하는

데 그 焦點을 두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 시기는 乙酉光復이후 現今에 이르기까지로 想定하였다.

둘째, 여기서 말하는 ‘韓國教育哲學’이란 두 가지 意味가 있다고 보았다.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研究가 되어온 教育철학 일반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韓國에서 唱道된 보다 獨創性을 지닌 教育철학을 指稱하는 뜻의 것이다. 다만 우리들의 課題意識에서 볼 때 후자의 追求가 더욱 큰 學的 關心을 끈다고 보았다.

셋째, 學史的 研究이니만큼,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 時期로 區分하였고 그것은 韓國教育哲學研究의 學史上的의 세가지 類型化도 되게 해 보았다. 但, 時期區分은 어디까지나 便宜上의 것으로서, 顯著한 特徵 내지 強調點이 表示된 時期로 理解하면 될 것이다.

네째, 弘益人間的 理念과 듀이教育哲學의 主導(1945~1953)에 있어서는 韓國教育理念의 法的 根據 및 關係論著의 類型化를 다루었으며, 듀이教育哲學이 韓國教育에 미친 影響과 아울러 主導의인 네명의 韓國教育哲學者의 學的 活動에 대하여 分析考察하여 보았다.

다섯째, 多樣的 現代歐美教育哲學의 紹介 및 受容(1953~1963)에 있어서는 恒存主義, 本質主義, 改造主義, 實存主義, 構造主義, 分析主義 및 其他 教育哲學者의 翻譯狀況의 分析, 整理를 비롯해서, 그간 우리나라에서 刊行된 多樣的 教育哲學을 內容으로한 著書, 그리고 教育哲學關係의 解題書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 보았다.

여섯째, 韓國의 教育的 傳統의 發掘 및 새로운 韓國教育哲學의 定立(1963~現在)에 있어서는, 세 가지 事項을 考察하여 보았다. 즉, 하나는 韓國教育史教育哲學會와 韓國教育學會韓國教育史研究會가 1964년과 1967년에 각각 創立됨으로써 그간 教育哲學研究上 많은 進展과 커다란 學問的 成果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요, 다음은, 韓國의 教育的 傳統의 發掘에 관해서이다. 이것은 1960年代初에 胎動한 韓國學의 再建運動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近年에 이르러 점차 充實한 學究的 成果가 著書形式을 통해서 발표되기 시작하였음을 지적해 보았다. 끝으로, 教育哲學書의 刊行 및 새로운 韓國教育哲學의 定立에 대하여 論及하였는데, 특히 그것의 具體적인 例의 하나로서, ‘基礎主義’에 대하여 紹介해 두었다.

‘基礎主義’는 韓基彥이 1957년 命名, 1966년 提唱한 것을 契機로 그후 論文과 著書가 계속 발표·出版됨으로써 韓國의 教育哲學者들의 關心對象이 되어 왔으며, 好評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그 것은 ‘傳統과 改革의 調和를 통한 人間形成의 論理’를 내세우고 있으며, ‘時間·自由·秩序’의 3理念과, ‘文化·生活·知性·人格·協同·奉仕’라는 6概念을 教育的 價値體系로서 提示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歷史意識 및 ‘歷史的 狀況性’을 아울러 강조하고 있다.

參 考 文 獻

1.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1976, 「韓國現代文化史大系 II」
2. 韓基彥, 1974, 「增補版 韓國教育의 理念」, 서울大學校出版部,
3. 大韓民國學術院, 1976, 「學術總覽」第11輯, 哲學篇(1901~1975).
4. 白樂濬, 1963, 「韓國의 現實과 理想」, 서울, 東亞出版社.
5. 姜鎬文, 1972, 「弘益人間의 理念」에 關한 一研究, 延世大學校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油印物)
6. 韓基彥, 1975, 「教育의 歷史 哲學的 基礎」, 서울, 實學社.
7. 司空 桓·外, 1949, 「民主主義 民族教育論」, 서울, 同心社.
8. 유형진 편저, 1969, 「국민교육헌장의 이론과 실제」, 서울, 배영사.
9. 吳天錫, 1946, 「民主主義教育의 建設」, 서울, 國際文化社.
10. 吳天錫, 1960, 「民主教育을 指向하여」, 서울, 乙酉文化社.
11. 吳天錫·林漢永 共譯, 1953, 「民主主義와 教育」, 서울, 한국번역도서주식회사.
12. 李寅基, 1976, 「教育과 時想」, 서울, 螢雪出版社.
13. 許鉉, 1967, 「人間의 第四革命」, 서울, 許鉉教授遺稿文集刊行會.
14. 林漢永, 1968, 「듀우이教育思想의 研究」, 서울, 民衆書館.
15. 林漢永, 1977, 「존 듀우이의 生涯와 思想」, 서울, 培英社.
16. Park, Bong Mok, 1968, *An Analysis of the Ideas of John Dewey and Reinhold Niebuhr on Social Justice and the Implications of These Ideas for Korean Education*, New York University, Ph.D. Dissertati on (Michigan: Microfilm Co., 1967)
17. Kim, Jae Man, 1973, *An Axiological Study of Dewey's Education*, Hiroshima University, Ph. D. Dissertation.
18. 李教熙, 1964, Platon 教育哲學과 Dewey 教育哲學의 比較研究, 「教育學會誌」第2號, 韓國教育學會.
19. 鄭健泳 1967. John Dewey의 教育的 經驗論, 「教育學研究」V-1, 韓國教育學會.
20. 王學洙, 安仁熙譯, 1955, 「教育哲學」, 서울, 京鄉新聞社.
21. 李鍾學譯, 1961, 「民主教育의 進路」, 서울, 京鄉雜誌社.
22. 李鍾學譯, 1965, 「教養教育의 本質」, 서울, 京鄉雜誌社.
23. 韓基彥譯, 1957, 「教育思想史」, 서울, 한국번역도서주식회사.
24. 柳炯鎮 譯, 1961, 「人間과 教育」, 서울, 民衆書館.
25. 柳炯鎮 譯, 1961, 「教育의 目的」, 서울, 乙酉文化社.

26. 李寅基, 徐明源 譯, 1963, 「教育哲學」, 서울, 乙酉文化社.
27. 黃宗建 譯, 1975, 「文化的危機와 教育」, 서울, 培英社.
28. 李洪雨 譯, 1973, 「교육의 過程」, 서울, 培英社.
29. 金恩雨 譯, 1966, 「現代教育哲學」, 서울, 서울大學校出版部.
30. 李奎浩 譯, 1967, 「實存哲學과 教育學」, 서울, 培英社.
31. 文仁元 外 共譯, 1977, 「교육의 再吟味」, 서울, 培英社.
32. 成來運 譯編, 1963, 「教育哲學」, 서울, 培英社.
33. 金在萬 譯, 1976, 「천부적인 교사」, 서울, 培英社.
34. 姜馨涓 譯, 1977, 「섬머힐」 I, II, III, 서울, 培英社.
35. 吳天錫 編, 1962, 「教育思想」, 서울, 現代教育叢書出版社.
36. 韓基彥, 1965, 「現代教育思潮」, 서울, 法文社.
37. 韓國教育學會編, 1971, 「교육의 哲學的 理解」, 서울, 培英社.
38. 金丁煥, 1974, 「교육의 哲學과 課題」, 서울, 博英社.
39. 신득렬, 1979, 「교육사상가 연구」,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40. 韓國教育史教育哲學會編, 1967, 「教育思想家百選」, 서울, 서울大學校 出版部.
41. 教育古典文獻研究會編, 1973, 「教育古典의 理解」, 서울, 梨大出版部.
42. 教育古典文獻研究會編, 1975, 「20세기 教育古典의 理解」, 서울, 梨大出版部.
43. 韓基彥 編, 1979, 「教育名著解題」, 서울, 韓國能力開發社.
44. 韓國教育學會編, 1973b, 「韓國教育學會 20年史」.
45. 李寅基, 1977, 韓國教育哲學의 回顧와 展望, 「教育史教育哲學」創刊號, 韓國教育學會 教育史教育哲學研究會.
46. 韓基彥, 1976, 韓國教育學定礎의 歷史的 自己展開, 「碧溪李寅基博士古稀紀念教育學論叢」, 서울, 螢雪出版社.
47. 韓國教育學會編, 1973a, 「韓國教育學研究史」.
48. 韓基彥, 1968, 「韓國教育의 理念」, 서울, 서울大學校出版部.
49. 韓基彥, 1969, 「韓國教育思想史研究」, 서울, 서울大學校出版部.
50. 韓基彥, 1973, 「韓國思想과 教育」, 서울, 一潮閣.
51. 金仁會, 丁淳睦, 1974, 「韓國文化와 教育」, 서울, 梨大出版部.
52. 孫仁銖, 1976a, 「栗谷의 教育思想」, 서울, 博英社.
53. 孫仁銖, 1976b, 「申師任堂의 生涯와 教訓」, 서울, 博英社.
54. 丁淳睦, 1978, 「退溪教學思想研究」, 서울, 正益社.
55. 金蕙卿, 1975, 「새로운 女性의 길——韓國女性教育思想研究」, 서울, 實學社.
56. 孫仁銖, 1978, 「韓國人의 價値觀——教育價値觀의 再發見」, 서울, 文音社.

57. 金仁會, 1979, 「韓國人的 價值觀——巫俗과 教育哲學」, 서울, 文音社.
58. 韓基彥, 1978 겨울, 書評: 孫仁銖 著 韓國人的 價值觀, 「韓國學報」, 第十三輯.
59. 林漢永, 1957, 「教育哲學」, 서울, 豐國學園.
60. 吳天錫, 1972, 「教育哲學新講」, 서울, 教學社.
61. 金善陽, 1976, 「教育哲學」, 서울, 教文社.
62. 李敦熙, 1977, 「教育哲學概論」, 서울, 博英社.
63. 韓基彥, 1973, 「基礎主義」, 서울, 培英社.
64. 韓基彥, 1977, 「韓國教育哲學의 構造」, 서울, 乙酉文化社.
65. 韓基彥, 1979a, 「教育觀의 確立」, 서울, 韓國能力開發社.
66. 韓基彥, 1979b, 「現代人과 基礎主義」, 서울, 世光公社.
67. 朴先榮, 1977, 佛教思想에서 본 基礎主義, 「教育學研究」XV-1, 韓國教育學會.
68. 朴奉穆, 1977, 韓國教育哲學의 學史的 整理, 「教育史教育哲學」, 創刊號, 韓國教育學會
教育史教育哲學研究會.
69. 丁淳睦, 1977, 韓國教育哲學의 理念分析·繼承·定立의 展望, 「教育史教育哲學」創刊
號.
70. 渡部 學, 1976, 韓基彥 教授, 韓國教育哲學의 定礎について, 「韓」V-10, 東京, 東京
韓國研究院.
71. 丁淳睦, 1976, 教育學研究 30年의 力著——解題와 論評, 「讀書生活」特輯 I, 教育學研
究 30年, 서울, 三省出版社.

A Historical Study of Educational Philosophy in Korea

Hahn, Ki Un

The development of Korean philosophy of education can be divided in three historical periods. The organization of this paper is based on that division, as follows:

I. The concept of *hong-ik-in-kan* and the predominance of John Dewey's philosophy of education

1. The concept of *hong-ik-in-kan*
2. The predominance of John Dewey's philosophy of education

II. The introduction and adoption and adoption of various trends of modern philosophy of education from Western countries

1. Translated materials
2. Books dealing with various trends of philosophy of education
3. Books employed in the interpretation of philosophy of education

III. Reawareness of the Korean tradition of educ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Korean philosophy of education

1. The organization and development of The Society of History and Philosophy of Education in Korea and The Society of Korean History of Education
2. Reawareness of the Korean tradition of education
3. The publication of books on philosophy of educ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Korean philosophy of education

The main task of this paper is to survey and discuss Korean philosophy of education from 1945 until the present. "Korean philosophy of education," as used in this paper, has two meanings: (1) the general area of philosophy of education studied in Korea and (2) the unique philosophy of education initiated in Korea. It seems that the latter attracts more academic interest than the former. The three periods listed in the organization format presented above can be regarded as standing for the three types of the study of Korean philosophy of education.

Chapter I treats the classification of literature on philosophy of education. It also contains an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John Dewey's philosophy of education in Korea.

Chapter II surveys and analyzes translated materials treating perennialism, essentialism,

reconstructionism, existentialism, structuralism and analyticism, and examines other literature on philosophy of education.

Chapter III is composed of three sections. The first concerns the contribution of two societies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philosophy of education and to academic achievement in this field. The second section treats the reawakening of Korean philosophy of education amidst the background of the renewed interest in Korean studies initiated in the early 1960s. The last section claims that "foundationism" is the found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Korean philosophy of education. Foundationism, initiated by Hahn, Ki Un, has a motto, three ideas, and six concepts: the motto is "the formation a human through the harmonization of tradition and innovation", the three ideas are "time, freedom and order", and the six concepts are "culture, life, intellect, personality, cooperation, and service."